



보도시점 2024. 6. 26.(수) 11:00 이후 사용 배포 2024. 6. 25.(화)

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

- 정부, 25년도 ODA 규모 6조 7,972억원(전년대비 8.5%↑) 요구 의결,
흔들림 없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의지 구현 -
- ODA 규모가 확대된 만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내실화 추진-

□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월 26일(수) 오전,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, 올해 대비 5,343억원 증가한 6조 7,972억원 규모*로 「'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」을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.

* 한국은행 출자금 등을 제외한 정부 예산요구 규모는 6조 4,947.8억원(지사체 60.8억원 포함)

○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*해 왔으며, 올해도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'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하였다.

* (22) 3.94조원 → (23) 4.78조원 21.3%↑ → (24) 6.26조원 31.1%↑ → (25) 6.79조원 8.5%↑

○ 이날 의결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총 사업수는 줄이고(1,976→1,936개 △40개)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(18.8→22.3억원 3.5억원↑)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 편성에 집중하였다.

○ 앞으로도 관행적·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, 국조실-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·집행·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‘ODA혁신로드맵’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 계획(‘26~’30)에 반영할 계획이다.

□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“기후변화,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,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동 위원회에서 `23년 67개 재외공관이 211개*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,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,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다.

* 적극적인 모니터링 실시 독려 등으로 대상 사업수 전년대비 약 13% 증가

○ 모니터링 결과, 정상이행 비율은 85%로 증가하였고,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%로 감소하였다.

※ 연도별 정상이행·후속관리 사업 비중(%): (‘21) 79:21 → (‘22) 83:17 → (‘23) 85:15

○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·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

○ 금년도부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·강화*하여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*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건수를 연간 3~5건에서 5~7건으로 확대

※ (첨부)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류승목 (044-200-2148)
		담당자	사무관	박석일 (044-200-2162)
담당 부서 <안건 1>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류승목 (044-200-2148)
		담당자	사무관	정진호 (044-200-2161)
담당 부서 <안건 2>	외교부 개발협력과	책임자	과장	채연주 (02-2100-8137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범 (02-2100-8352)

1 25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

- ◆ ODA 규모 확대에 따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욱 책임있는 역할 수행
- ◆ 관행적 사업 구조조정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ODA 추진
- ◆ 대형프로젝트 발굴·지원방식 다변화를 통해 ODA 성과 제고

- (총괄) '25년 ODA 총규모는 6조 7,972억원(총 41개 기관 1,936개 사업), 양자사업 5.72조원 / 다자사업 1.07조원 (양다자 비율 84:16)
 - * '24년 대비 ▲규모 0.53조원 증가(8.5%↑) ▲참여기관 5개 감소 ▲사업 40개 감소(2.0%↓)
 - ※ 한국은행 출자금 등을 제외한 정부 예산요구 규모는 6조 4,947.8억원(지자체 60.8억원 포함)
 - (유형) 양자사업 中 유상 2.21조원 / 무상 3.51조원 (유무상 비율 39:61)
 - (지역) 아시아(32.1%) > 아프리카(15.8%) > 중남미(8.5%) > 중동·CIS(6.9%) 順
 - * '24년 대비 아시아(31.8 → 32.1%), 중남미(7.7 → 8.5%) 등 비중 증가
 - (분야) 인도적 지원(15.2%) > 교통(10.8%) > 에너지*(10.0%) 順
 - * '24년 대비 에너지(5.9% → 10.0%), 환경보호(3.2% → 4.6%) 분야 큰 폭 증가

2 전략목표별 추진계획

【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】

- 분쟁·재난 등 글로벌 위기 지속 전망, 확대된 예산을 국가·사안별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 강화*
 - * ▲국제기구·공여국과 협력 활성화 ▲국제기구 공동현장 모니터링 (연2회) ▲비축물자 전수 조사(반기 → 분기별) ▲교육·훈련 및 인력풀 확대 등
- 식량 원조 확대('24 1,120억원 → '25 1,255억원), 포용의료*(젠더·장애 등) 강화 등 취약국·취약계층 집중 지원
 - * ▲볼리비아 모성사망 예방('25-'29, 114억원) ▲우크라 소아 트라우마·재활의료 ('25-'28, 188억원) 등

【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】

- GCF('24~'27 총 3억불)·GGGI('22~'26 연 60억원) 등 경제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글로벌 기후재원 조성 기여 및 개도국 친환경 인프라 구축* 종합 지원
 - * 탄자니아 이링가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('24~'30, 1,190억원) + 스마트 물관리 사업('25~'28, 105억원)

- 아세안(대형 인프라)*, 아프리카(농업·보건)** 등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 분야를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

* ▲인니 발리 경전철 건설사업('25-'31/ 3,368억원), 신수도 수중터널('25-'32/ 8,569억원) 등

** ▲품종개발('25~'29, 60억원), 종자생산 ('23~'28, 292억원), 재배단지 조성 ('23~'28, 548억원) 등 K-라이스벨트
▲가나 보건의료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모자 청소년보건영양 증진사업('25-'29, 175억원) 등

【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】

- 협력국별 발전 수준·수요를 반영하여 전자정부 도입, 통신망·데이터센터 구축 등 디지털 사회 기반 조성*

* ▲탄자니아 국토정보인프라 개선('24~'27, 876억원) ▲엘살바도르 디지털 연결성 개선('23~'28, 472억원) 등

- 사업대형화 기반 확충(EDCF 기본약정 확대)* 및 민·관 전략 패키지 지속 발굴**을 통해 경제·사회 인프라 조성 효과성 제고

* (정상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계기) 기본약정 증액(10→20억불), 고속철 차량공급(2억불) 등 차관계약 체결 (30억불 이상) ▲캄보디아(15→30억불) ▲방글라데시(7→30억불) ▲인도(40억불 신규 추진)

** 케냐 나이로비 교통 패키지: (유상) 도로건설 + (무상) 장기 도로계획 수립 + (NGO) 교통안전 캠페인 등

【 파트너십 고도화 】

- 국제기구·공여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 및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* 이행을 통해 ODA 선진화 추진

* ▲정책일관성 제고 ▲양·다자파트너십 강화 ▲수원국과 소통 강화 ▲현지권한 위임 확대 ▲인력 확충 ▲시행기관 역량을 고려한 ODA 확대 우선순위 부여 등

- 시민사회 협력 예산 확대('24570억원 → '25700억원), 시민사회·기업과 소통창구 확대* 및 혁신기업 등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 강화

* ▲정부-시민사회 정책협의회 ▲KOICA 민관협력 정례협의회 ▲EDCF 전략설명회 등

※ ODA 성과제고를 위한 체계 공고화

-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 강화, 사업 대형화패키지화 등 'ODA혁신로드맵' 마련 추진

- 협업예산·인사교류 등 '부처간 협력체계 강화', 청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'ODA 생태계 선진화'

1 추진배경

- (추진배경)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('17.6월)는 주관기관의 이행 점검 강화,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의결
 - 시범운영('17.10월) 후 '18년부터 재외공관 주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중

2 '23년도 모니터링 결과

총 67개 재외공관이 70개국 211개 무상원조사업 대상 점검 실시
 ⇒ 정상이행 182개(85%), 후속관리 필요 등 29개(15%) 사업
 ⇒ 전년 대비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감소(17%→15%)하였으나, 사업효과성 저해 요인은 유사

- (후속관리 필요사업) ▲기획·관리 개선 필요 사업, ▲후속관찰 필요사업, ▲기타 사업 등으로 구분
 - (기획·관리 개선) ▲코로나19, 수원국 행정절차 등 외생적 요인과 ▲수행기관 관리 미흡, 수원국 여건 파악 미비 등 시행기관측 요인에 기인
 - ※ 행정절차 지연 수원국측 자원 확보 지연 사업 현황 점검 부실 수원국 기초여건 파악 미비 등
 - (후속관찰) 수원국의 후속 운영을 위한 지구 노력 부족, 장비 등 후속관리 미흡, 연계사업 추진 수요 존재 등
 - ※ 수원기관의 운영예산 및 인력 미확보, 종료사업에 대한 사후 유지보수 수요 발생 등
 - (기타) 급격한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이행 제약, 국제기구가 수행기관인 사업의 경우 우리측 기여 가치성 제고 노력 필요 등
 - * 코로나19 이후 스리랑카 정세·경제 불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

<주요사례>

- ①(사업지연) 콜롬비아 하수처리 실증단지 구축, 스리랑카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 등,
- ②(성과부족) 페루 골든베리 건조과정 개선, 나이지리아 독립형 미니그리드 구축 등,
- ③(사후관리 필요) 페루 정보접근센터 구축,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 강화 시범사업 등, ④(지속성 강화) 우간다 청년창업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등, ⑤(홍보강화) 부탄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및 영양교육 증진 등 (※ 상세 내용 안건 참조)

3 향후 계획

- (개선방안) 사업 발굴-집행관리-사후관리 순 단계에서 사업 효과성 저해요인의 해소방안 마련·추진
 - (발굴) 사업을 현장 수요·여건에 맞게 기획하고, 수원국 및 시행기관 책임성 강화
 - 시행기관 사전타당성조사 내실화, R/D 체결시 수원국 분담사항 및 자체적 운영 책임 명시 등
 - (집행관리) 무상원조 사업 성과 제고 및 확대된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저성과 사업 점검 및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
 - 「집행관리 분과회의」 운영 및 회의 결과 환류, 재외공관 ODA 협의체 활성화, 시행기관의 집행 현황 점검 내실화 등
 - (환류) 모니터링, 현지 협의체 등 결과를 시행기관 사업 기획·추진 과정 및 주관기관의 사업 심사에 효과적으로 환류
 - 문제 빈발 사업 유형(▲단순 기자재·시설물 구축 사업, ▲구체 과업 未협의 사업, ▲일부 모듈형 사업 등) 및 기관(시행·수행·수원기관) 대상 환류 강화 등
- (‘24년 모니터링) 68개 재외공관 76개국을 대상으로 325개 무상원조사업 점검중
 - ※ 재외공관에 후보사업(2,484개) 전달(1월) → 재외공관 모니터링 희망사업(422개) 접수(2월) → 재외공관 대상 사업정보 제공(2월) → 최종 모니터링 사업 목록 접수(~3월)
 -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금년도부터 공관별 모니터링 건수를 연간 3~5건에서 5~7건으로 확대
 - 올해 중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‘25.1월 사업 소관 부처에 회람하고 조치계획 수립 및 ‘26년 무상원조사업 심사 시 반영
 - 재외공관을 통한 모니터링과 별도로 외교부 주도 민관 합동 이행 점검 실시 추진(‘24년 하반기)
 - 사업 분야(보건·디지털·에너지 등), 형태(모듈형·개발컨설팅· 등), 지역(아시아·아프리카 등) 등 중점 주제를 설정·점검하고 향후 심사 및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